

“3,380만석 꼭 달성하자”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97 쌀생산 10대 중점시책

지 난해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각급 행정·지도기관 및 유관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국 1백 20만 쌀 생산농가의 정성어린 농사관리 그리고 벼 농사에 알맞은 기상조건에 힘입어 벼 농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다.

지난해 쌀의 10a당 수량은 당초계획인 460kg보다 10.2% 많은 507kg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쌀 생산량도 당초 목표인 3천3백70만석보다 3백26만석이 많은 3천6백96만석을 달성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쌀 재고부족으로 인한 외미도입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사회·민심 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가 아직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쌀 수급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2~3년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서 식량주권 확립이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쌀 자급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약정수매제와 직접지불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증산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벼 재배면적

확보와 단수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년 농림부에 설치해오던 '쌀 생산 종합대책상황실'을 금년에는 '쌀 생산대책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예년보다 2개월이상 빠른 지난 1월6일부터 가동시켜 금년도 영농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전국 각급 행정·시군·농협계통기관 5백40개소에도 '쌀 생산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금년도 쌀생산 목표량인 3천3백80만석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10대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재배목표면적 1,045천ha 확보

벼 재배 목표면적 1백4만5천ha를 우량논 중심으로 최대한 확보 하되 간척지 2만9천ha에 대해 가 경작을 추진하고, 지난해 생산화 한 휴경지 1만4천ha를 포함한 2 만ha의 휴경지를 생산화할 계획 이며 이를 위해 특별 경영자금 2 백억원과 지방비 52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우량논 잠식 억제제를 위하여 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농지전용도 강력히 억 제해 나갈 계획이다.

2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단보당 5백kg이상 생산될 수 있는 양질다수성 품종 벼의 재배 면적을 지난해 41만7천ha에서 금년에는 57만5천ha로 확대하기 로 하고 소요종자중 양질다수성 품종 8천3백65톤을 농가간 자율 교환하도록 알선하고 정부보급 중도 지난해보다 3천톤이 많은 1 만3천톤을 공급하였다.

3

토양개량 강력추진 땅심증대

땅심은 80년대에는 강력한 지

력증진 시책추진으로 좋아지다 가 90년대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토양개량, 객토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개 량사업의 경우 금년에 22만3천 ha에 대하여 100% 보조사업으 로 단협 주관하에 들녘별로 공동 살포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 고 있으며, 객토사업도 1만7천7 백ha에 2백6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되 융자금 상환기간을 1 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4

물부족지역 용수확보대책 추진

경주, 포항 등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암반관정 3백 53공, 저수지 준설 3백57개소, 양수저류 8백96개소 등의 영농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가뭄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5

적기 모내기 완료토록 지원

적기에 모내기를 하면 등숙기 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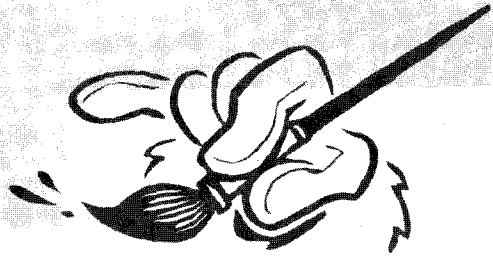
김 병 기
농림부 농신기술과장

량이 6%정도 증가하고, 냉해 등 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기 모내기가 매우 중요하다. 금년은 절기가 예년보다 빠르고 봄철 기온도 높아 못자리 설치와 모내기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특수 2모작 지역과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도 7월 10일 까지는 모내기를 완료할 수 있도 록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특히 모내기철에는 밭작물 수확과 과일숙기 등 농작업이 겹 치는 점을 감안하여 5.12~6.30 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농촌 일손돕기를 전개하고 있다.

6

평당 80주로 적정포기수 확보

농촌 일손부족으로 모내기 위 탁작업이 늘어나면서 평당 포기



수가 74주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량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평당포기수를 80주로 늘려심도록 대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양기 27만1천대에 대해서 식부조절장치를 상향조절하고, 모부족에 대비하여 충분한 상자모를 사전에 확보토록 상자모 10%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7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벼 재배양식의 변화와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로 농사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 피, 올방개, 올미, 벼풀 등의 잡초가 많아지고 있어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잡초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깨끗한 들판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병해충 공동방제 예산 65억원을 피등 잡초방제를 위해서도 사용토록 하고 있다.

8

정밀예살로 병해충 적기방제

병해충을 방제하지 않을 경우 감수율이 연간 1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약을 적기에 확보 공급하고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물바구미, 벼멸구, 흰등멸구, 이화명충을 중점방제 대상 병해충으로 선정하여 초기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해충 예찰 강화를 위해 4.18~9.19 기간중 중앙 및 각도에서 예찰회의를 격주로 개최(7, 8월은 매주개최)하고, 특히 금년에는 벼물바구미가 예년보다 일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중점방제 기간을 설정하여 적기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돌발병해충 등의 예방을 위하여 23만ha의 면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9

집중호우 태풍등 재해대비 철저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부 및 일선 기관단체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연중 가동하고 있으며 태풍, 홍수, 대설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상상황 발생시에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0

적기수확으로 수량손실 최소화

최근 콤바인 제조기술의 발달로 콤바인 수확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작업을 대행하는 농가들이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속도를 무시하고 주행속도로 수확작업을 함에 따라 벼손실률이 2%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96년부터 공급되는 콤바인에 대하여는 주행속도로는 수확작업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바 있으며, 또한 주행속도로 수확작업이 가능한 약 4만5천대의 콤바인 보유 농가에 대해서도 적정작업 속도로 수확작업을 실시하여 주도록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실천하여 금년도 쌀 생산목표인 3천3백80만석을 기필코 달성하도록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농약정보